



축산단지 축종별 47개소 선정

농림수산부는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축산단지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위해 신규로 47개소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에 총 3백50억5천8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축종별로 보면 한우단지 13개소 48억1천8백만원, 낙농 4개소 23억3천5백만원, 양돈 22개소 2백18억8천8백만원, 양계 8개소 60억1천6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양계단지 8개소의 경우 보조 4억7천1백만

단 지 명	소 재	금 액
자연단지	경기 포천군 영북면 문암리	8억3천6백만원
금가단지	충북 충주시 금가동 하담리	11억5천만원
백자단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청화리	6억9천6백만원
시곡단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5억2천2백만원
당진단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9억2천2백만원
주산단지	전북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7억7천4백62만5천원
가산단지	경북 구미시 도개동 가산리	8억8천72만5천원
안평단지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9억3천4백85만원

원, 용자 55억4천5백만원을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며 선정된 곳은 표와 같다.

국검동약검정기준 개정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23일 1백59개 품목의 예방약(백신)의 분류방법을 전면 개정하고 신개발 예방약의 검정기준을 추가해 국가검정동물약품의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국검기준은 예방백신의 경우 소·돼지·닭·개·기타 등 축종 및 제품별로 재분류, 코드번호를 부여했으며 품목별 시험방법 보완과 함께 시험동물의 수량을 재조정하는 등 국검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했다.

검정시 불합격한 항생물질제제와 예방약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하되 종전 전량폐기토록 한 수입품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토록 했다.

이번 국가검정기준 개정고시는 국검동약의 안전성·효능·역가시험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확정, 시행

농림수산부는 지난 12일 관광농원과 농어촌휴양단지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관광농원은 규모가 1만 5천평을 넘지 못하며, 지정 면적의 40% 이상은 반드시 농장·축사·양어장·분재원·저수지·사육장·초지·하우스 등의 영농체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최소

9천평에서 3만평을 넘지 못하며, 18평이상의 농림어업 전시관과 18평이상의 학습관, 9평이상의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농장사업은 최대 시설규모가 1만5천평을 넘지 못하며, 지정 면적의 60% 이상을 영농에 이용토록 했으며, 40%이상은 반드시 이용객들에게 임대토록 규정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은 5가구이상의 농어가가 참여해야 한다.

개발주체는 관광농원의 경우 농림어업인과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등이며,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축협, 수협, 임협, 농조 등이며, 주말농원 사업은 농림어업인,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등이다.

초생추, 가금, 종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농림수산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초생추, 가금, 종란의 수입위생조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9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중 개정-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1994-44호): '94. 8. 20)중 제4호 및 제5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중 당해 수출 초생추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캐슬병(l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

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프라스마병,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푸스, 마력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빈혈(CAA), 전염성 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

5.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암, 수 모두)은 초생추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 초생추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추백리 및 닭티푸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다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또는 한국 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금의 수입위생조건중 개정-

가금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1994-45호): '94. 8. 20)중 제4호 및 제5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4. 수출가금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중 당해 수출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캐슬병(l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프라스마병,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푸스, 마력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빈혈(CAA), 전염성 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

5.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코플라스마

병, 추백리 및 닭티푸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수출가금의 1%로하되 최소한 100수이상 이어야 하며 수출가금이 100수 미만인 경우는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또는 한국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종란의 수입위생조건중 개정-

종란의 수입위생조건(농림수산부고시 제1994-47호: '94. 8. 20)중 제4호 및 제5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에는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중 당해 종란의 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캐슬병(l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크로프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푸스, 마렉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너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

5.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군(암, 수 모두)은 종란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종란의 가금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크로프라즈마병, 추백리 및 닭티푸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다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또는 한국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축산기술연구소

'96축산시험연구과제 공모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업의 산업화 조기 정착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이달 말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동소에서 축산분야 시험연구과제를 공모하는 것은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축산업의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함이며, 축산업의 산업화 조기정착에 필요한 시험연구과제를 구상하고 있는 산업계·학계·행정기관은 "'96축산시험 공동연구 제안과제 연구계획서"양식에 맞추어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부로 공모하면 된다.

상기 양식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요인별 현황 및 목표를 가능한한 수치화 할 것), 주요 설계내용, 기타사항 등을 표기하게 되어있다.

뉴캐슬, 티푸스 발생경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닭뉴캐슬병과 가금티푸스 발생경보를 지난 3일 발령하고 양계농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닭뉴캐슬병의 경우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닭에 감염될 때는 모두 죽게 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금년 2월에 발생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으나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북 일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가금티푸스는 법정전염병인 추백리와 그 특성이 유사하고 발병시 병아리는 물론 성계에서도 높은 폐사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며 이미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는 경기 평택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여 최근에는 경기 포천, 강화, 경북 김천, 영주 등의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산란저하는 물론 많은 폐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이 두 질병이 전염성이 높아 철저한 예방관리와 격리로 질병의 확산방지를 당부하고 있다.

성균관대 생명자원과학 연구소

워크샵 개최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 화장품 사료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워크샵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식품과 사료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됐다.

미국사료곡물협회

사료곡물수급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사료곡물협회(USFGC)는 급변하는 국제 사료곡물 시장에 대응하여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 22일 한국사료협회 강당에서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곡물수급전망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Troy Hobbs(미국사료곡물협회

시장전문가)의 “세계사료곡물수급 및 가격전망”, “사료곡물 구매전략”, “금후의 대응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국제사료곡물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시키고 배합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의과학연구소

전화번호 변경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의 대표 전화번호가 지난 6일부로 (0343)67-1700으로 변경되었으며, 각 부서별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과	부	서	일반전화	성 명
관 리 과	소	장	67-1701	이재진(직)43-7720
			67-1702	
	부	속 실	67-1703	지순옥
병 리 과	과	장 실	67-1745	최상호
세 균 과	과	장 실	67-1765	김종염
바이러스과	과	장 실	67-1781	안수환
계 역 과	과	장 실	67-1801	김기석
	가	금 병 리 실	67-1802	모인필, 권용국, 남상섭, 권희만
	가	금 세 균 실	67-1805	남궁선
	가	금 세 균 실	67-1806	이희수, 우용구, 이인숙
	가	금 바이러스실	67-1807	성한우
	가	금 바이러스실	67-1808	송창선, 이영주, 이윤정
	서	무	67-1809	이준호
	SPF	동물연구실	67-1810	
기생충과	바이러스실	67-1821	윤용덕	

